

‘창립 50주년’ 현대중공업 50년 넘어 100년 미래 준비 정주영 철학 담긴 사사 발간



현대중공업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사(社史)를 발간,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50년을 준비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972년 창립 이래 반세기 역사를 기록한 ‘현대중공업그룹 50년사’ (사진)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통사, 성장스토리, 화보 등 3권으로 구성된 ‘현대중공업그룹 50년사’에는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경영 철학인 ‘현대정신’을 바탕으로 그룹이 성장해오는 과정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정주영 창업자가 영국 런던의 금융가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들이밀어 조선사업 차관을 따내고 유조선 설계도면과 백사장 사진, 축적 5만분의 1 지도만으로 그리스로부터 유조선 2척을 수주한 일화 등 지난 50년의 족적과 함께 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수소드림 2030’, 글로벌 연구·개발(R&D) 센터 건립 등 그룹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자세히 포함돼 있다. /양성운 기자



GS그룹 주요계열사,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총력

4일 GS그룹은 GS리테일, GS칼텍스, GS스포츠 등 주요 계열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응원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은 많은 스포츠 팬을 확보한 ‘GS스포츠’다. FC서울은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 북측 광장에 ‘2030 부산엑스포 홍보 부스’를 직접 설치해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응원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2030 부산엑스포 관련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섰다. /GS그룹

인천공항공사

3년 만에 스카이 페스티벌 개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이 야외에서 재개된다.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인천공항 잔디광장과 하늘공원에서 2022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을 연다고 전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스카이 페스티벌은 전 세계 유일의 공항 복합문화 축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의 만남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파견△중소벤처기업부 정책평가과장 이덕희

◆소상공인진흥공단△임원△기획경영본부장(상임이사) 김경숙△실장급△비서실장 이혁주△ESG혁신단장 김현석△인재혁신실장 이봉희△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실장 김영기△기획경영본부 경영지원실장 양승경△소상공인본부 성장지원실장 박진희△소상공인본부 창업성장실장 김중순△소상공인본부 소상공인지원실장 김은경△시장상권본부 상권육성실장 박경모△금융사업본부 금융지원실장 김관호△금융사업본부 금융관리실장 윤수정△금융사업본부 회복지원실장 김성권△디지털혁신본부 스마트지원실장 강성한△디지털혁신본부 빅데이터실장 오윤배△손실보상총괄반 손실보상지원실장 김원범

부음

▲허방형씨 별세,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씨 부친상=3일,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7시, 055-750-8448

K-콘텐츠, 中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오징어게임’이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K-Contents는 세계적으로도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해외 수출이나 해외 OTT 업체의 국내 투자 등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

K-Contents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핵심 시장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규모는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인터넷 보급률 등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KOTRA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말을 기준

으로 한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71.6%, 네티즌의 총 규모는 약 10억 1000만 명 수준이다. 여러 객관적인 지표에 따르면 중국 문화 콘텐츠 산업 규모는 앞으로도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중국에 수출할 때에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보호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와 관련된 핵심적인 지식재산권은 저작권(copyright)이다. 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일반인 등에 의하여 매우 쉽고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고, 한번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예컨대, 클릭 한번 만으로도 불법 복제물의 배포가 가능하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권리 침해를 확인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그 대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더욱 큰 주의가 필

요하다.

중국은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세계협약의 가입국으로 몇 차례에 걸친 저작권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 상당한 수준으로 정비돼 있다. 중국 저작권법은 공표권, 서명권, 수정권, 복제권, 발행권 등 우리 저작권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도 다양하게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정당국 등의 엄격한 집행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중국은 여전히 저작권 침해 관련 통계 등이 발표될 때에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주요 국가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국내 업체가 중국에 콘텐츠를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콘텐츠 자체의 특성, 중국 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 법률사무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법제는 국가별로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권리의 구체적인 발생요건이나 실현방안, 권리 구제를 위한 실무적인 대응방안 등에서는 차이도 많으므로 수출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생한 침해행위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예컨대, 상영 중인 영화 녹화본의 유통 등), 중국의 계약 상대방(counterpart) 등이 이에 대하여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 등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중국과 같은 광활한 시장 진출은 국내 업체들에게 거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커다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국내 업체들로서는 콘텐츠의 중국 수출 등에 앞서 법적, 사실적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최정우 회장 이어 정택 사장 ‘부산엑스포’ 유치전

포스코그룹

아르헨티나 장관 만나 지지 당부

포스코그룹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4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정택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은 아르헨티나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산티아고 카피에로 장관을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의 리튬 생산국으로 포스코그룹은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로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산업화에 나서고 있다.

이날 정 사장은 대한민국 제1의 항구도시인 부산이 세계박람회 개최에 최적의 도시임을 거듭 강조했으며 장명수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도 자리를 함께해 민관이 원팀으로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활동을 적극 펼쳤다. 또 정 사장은 글로벌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 소재·리튬·니켈 등 7대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아르헨티나 정부의 협조와 지원에 감사사를 표했다.



장명수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왼쪽부터)와 산티아고 카피에로 외교통상부 장관, 정택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들은 포

스코가 포스아트로 특별 제작해 전달한 기념품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 기념품은 철의 변하지 않는 견고함 속에 천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해운대, 광안대교, 누리마루 AP EC하우스 등 부산의 명소를 그대로 담아내 ‘첨단과 자연이 공존하는 개

최지 부산’의 장점을 표현했다.

이번 정 사장과 산티아고 카피에로 장관의 만남은 지난 3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한데 이어 다시 한번 성사된 자리로, 포스코그룹은 아르헨티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잇달아 만나며 교섭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최정우 회장이 부산 엑스포 민간위원회 유치위원으로, 정 사장이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올해 7월부터는 유치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태스크포스(TF)를 새롭게 발족했다. 이를 통해 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은 물론 포스코그룹의 주요 교섭 국가인 아르헨티나, 베트남, 멕시코 등에서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항만물류 인프라 경쟁력 제고 나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손잡고 안정적 수출입 공급망 확보

CJ대한통운이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손잡고 국내외 항만물류 인프라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4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해양진흥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항만물류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사업 기회 발굴 ▲프로젝트 사업성 검토, 경쟁력 있는 금융구조 모색 및 투자 지원 ▲국내 중소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

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측은 성장성 높은 항만물류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해 국가 공급망 인프라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사는 최근 팬데믹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세계 각국이 핵심 자원, 식량 등과 관련 국가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상황임에 발맞춰, 해외 물류인프

라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공조관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협력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 40개국 280개 네트워크와 국내외 최대 물류 인프라 및 사업 역량을 갖춘 CJ대한통운과 다양한 거시적, 정책적 투자를 통해 해운산업 재건과 국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해양진흥공사의 역량이 더해질 경우 우리나라 국가 공급망 경쟁력 향상은 물론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물류와 국내 중소기업 수출입 물류 활성화 등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는 “우리



(왼쪽부터)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나라 해운항만업의 든든한 버팀목인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국가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양사 상생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